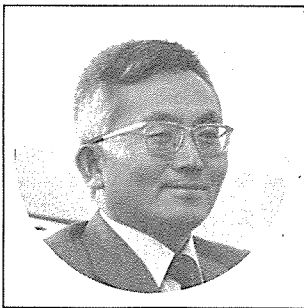


言論과 科學大衆化

國民的합의 바탕 造成 · 誘導해야



朴 星 來

〈韓國외국어대 교수·科學史〉

과학대중화 운동의 전개

“科學 大衆化”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제법 익숙한 표현으로 자리를 잡은 셈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만큼 우리들은 최근 수10년 동안 과학의 대중화를 떠들어 온 것이다. 아니 1930년대의 우리 선배들도 한껏 목청 높여 ‘科學의 大衆化, 大衆의 科學化’를 외쳤다는 점을 들이켜 본다면 그 역사는 반세기 이상을 거슬러 오른다.

그렇다면 그리도 떠들어 온 과학의 대중화가 이제는 제법 이뤄져 있느냐 하면 대답은 아주 否定的이다. 일부 식자들에 의해 거론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리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다.

1930년대의 과학대중화운동은 일제하에서 한 갈래의 民族運動으로 진행되었고, 그 때문에 그 운동은 곧 일제의 탄압 아래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해방 후 특히 1960년대 초부터 정부의 政策目標로 부각된 과학 대중화는 언제나 그대

로 정책목표로 내세워지고는 있지만 그 목표를 위한 가시적 노력을 제대로 기울여 본 일은 거의 없다.

과학 대중화는 반 세기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안고 있는 〈科學技術問題〉의 핵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난 6월17일 개관 후 처음으로 독립기념관을 관람한 나는 그 안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과학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어떻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일제하의 여러가지 사회운동이 전시된 방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 과학대중화운동은 흔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일제하에서 이 땅에는 처음으로 中等科學教育도 자리를 잡았고, 방송이나 그 밖의 생산기술등도 많이 자리를 잡았다. 여기에 얽힌 과학 기술의 문제는 우리 자체의 노력이라가 보다 일제의 정책적 산물이기 때문에 전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가 민족운동의 한 부분으로 탄압했던 거족적인 科學大衆化運動이 빠진 까닭은 바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의 부족 때문이 아니고 무엇인가?

科學의 大衆化란 오늘날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영향은 절대적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科學技術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의 포기는 현대인이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기를 단념한다는 것을 뜻한다. 있을 수 없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바로 1세기 전까지만 해도 서양 사회에서는 과학의 대중화란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을 정도였다. 科學技術이란 그들의 歷史的 傳統이 서서히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하기 쉬운 것이었던 까닭이다. 일류 과학자들이 몸소 자기들의 연구를 대중에게 講演會들을 통해 보여 주고 실험도 해 주었고 이런 모임이 당시의 지식층에게는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 아직 영화나 방송이 전혀 없던 때이기도 했지만, 아직 과학은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일반인들에게 흥미로운 것이었던 때문이다. 바로 그런 전통을 가진 西洋社會에서도 과학기술은 이제 그냥 대중에게 이해될 수 있는 쉬운 내용이 되지는 못한다. 지난 100년 정도에 과학기술이 너무나 다양하게 專門化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이와 같은 전통조차 전혀 없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과학기술이란 서양의 그것을 한참 발달을 거친 다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내용은 처음부터 상당히 細分化되고 專門化된 것이어서 대중의 즉각적 관심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애당초부터 대중적 기반을 전혀 갖지 못한 채 엘리트문화로 성장하기 시작했음을 말한다. 이런 연고로 科學의 大衆化 問題는 세계적 과제이면서도 특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절박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국 언론과 과학 대중화

과학기술의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중

요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교육은 크게 나누어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으로 구분할 수 있고, 사회교육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 바로 언론매체를 통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신문, 잡지, 방송등을 통틀어서 言論媒體라 부를 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매체는 아직은 일간신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民主化 과정과 더불어 우리 둘레에는 수없이 많은 잡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주간신문 종류도 아주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이 신문은 어느 것이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雜誌등을 보는 독자는 아직 그리 많지는 않다. 또 대중에게 가장 강력하고 폭넓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체로는 신문보다는 오히려 TV를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放送보다는 新聞이 교육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과학의 대중화 문제만해도 여기에는 우리 나름의 역사적 배경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漢城旬報」는 1883년 창간과 함께 그 지면의 상당부분을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할애했다.

개국 이래의 언론이 주로 서양의 앞선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큰 일거리로 삼았던 것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었다. 아직 다룬 국제정세에 대한 뉴스 따위가 뉴스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기한 科學技術의 얘기가 그대로 참신한 뉴스였기 때문이다.

1930년대의 과학대중화운동만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당시의 대표적 신문이었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등은 과학화운동을 위해 여러차례 지면을 내었음은 물론 “과학의 날” 시내 행진을 위해서는 자동차를 제공했고, 거리에 科學啓蒙을 위한 포스터를 만들어 붙였으며, 일부 행사 비용까지 부담하고 나섰다. 한국 근대과학 100년사에서 신문은 科

이 글은 과학기술진흥재단이 주최한 「과학언론진흥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것이다.
..... <편집자 註>

學大衆化運動의 첨병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발사와 함께 전세계가 과학에 관심을 높여가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마침 원자력연구가 시작될 시점이었고,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 나라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적이 있다. 이때 몇몇 신문은 科學部를 독립시키거나 과학기자를 두어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하기도 했다.

한국에서의 과학대중화운동이 신문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는 역사적 당위성을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韓國의 新聞이 과연 과학기술의 대중화라는 말은 바 역사적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는 평가하기가 부끄러운 일이다. 언론이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는 報道, 啓蒙, 論評등을 들 수가 있다. 이들 분야에서 각기 한국의 신문은 과연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 보자.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할 일은 과학기술에 할애하는 지면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다. 1주일이면 50면 전후의 신문을 내면서 그 가운데 과학기술은 1면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 관련기사를 포함하여 주 2면 이상을 내고 있다고 내세울 수도 있는 신문도 있겠지만, 여하튼 절대 분량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정도라도 一般 雜誌에 비한다면 여간 나은 형편이 아니다. 一般 月刊誌에는 아예 한 가지도 과학기술에 관한 글을 실지 않는 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신문의 과학기사는 주로 뉴스보도와 해설기사가 중심이다. 최근 해설기사 가운데 논평을 가미한 기사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대체로 한국에 있어서 신문의 과학기사는 논평 쪽이 빈

약하다. 어쩌다가 社說欄에 과학기술에 관한 사실도 나오기는 하지만 대개 과학의 날을 맞아 科學振興을 해야겠다거나 하는 따위의 의례적 걸치레인 수가 많다. 깊이 있는 논평이나 비판적 기사를 찾아 보기가 아주 어려운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다.

과학기술의 대중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媒體가 신문이라면 앞으로 우리 신문은 이런 한계성을 극복하여 제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거둬 태어날 각오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과학면을 제작하는 古式的인 태도를 벗어던지고 과학대중화에 선도적 자리를 차지할 일이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科學技術 記事는 어렵고 흥미없다는 상투적 반응의 문제가 있다. 신문은 간부들의 편집회의를 통해 대체적인 지면배당이 이루어 지는데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간부들은 걸핏하면 지난 번 과학기사는 재미가 없었느니 어쩌느니 不平하면서 지면을 다른 기사로 돌려려는 경향을 보이는 수가 많다. 그러나 과학기사가 독자의 興味對象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은 몇 가지 그릇된 전제에서 나온 오도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학이 재미 없다는 말은 우선 신문사 안에서 신문을 제작하는 言論人들 대부분이 과학기술에 무관심하고 무식하기 때문이다. 신문사 간부들의 합치된 의견이란 그 신문 전체독자층의 全體意見의 축소판이 아니라 극히 편협된 독자층만을 대변하기 마련이다. 신문독자의 구성은 언론인의 구성과 똑같은 문과 대 이과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科學技術關係 기사에 흥미를 가진 독자들은 지식층 사이에서도 말이 적은 층에 드

과학기술의 대중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媒體가 신문이라면 앞으로 우리 신문은 이런 한계성을 극복하여 제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거둬 태어날 각오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과학면을 제작하는 古式的인 태도를 벗어 던지고 과학대중화에 선도적 자리를 차지할 일이다.

엘로우 페이퍼(yellow paper)란 評判을 들을 정도로 과학기술에 관한 기사를 좀 저속화(?)하려는 각오가 과학기자들 사이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과학기술을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들고, 말썽꺼리로 만들고, 바로 우리 생활에 직결된 내이야기로 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科學者, 技術者들의 사진과 이력은 물론이고, 사생활에 관한 것까지 기사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는 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사는 재미가 없다는 평가에서 과학기사를 읽는 독자가 적다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사에 대한 많은 신문사 안에서의 평가는 근거 없는 偏見이 아닌가 반성해 볼 일이다.

그러나 오늘의 신문 과학기사가 독자의 흥미 유발을 위해서 또는 그 자체의 질적향상을 위해 개선할 여지는 아주 많다. 논평의 부족은 해결해야 할 가장 절실한 문제다. 도대체 한국의 과학기술계에는 아무 비리도 없고 잘못된 정책도 실수한 연구비사용도 없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면 科學技術院 分離問題에 대한 것이다. 8년전 두 기관을 통합했다가 이제는 이를 다시 분리한다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원래 統合이 잘못되었다는 뜻이겠는데, 그렇다면 그 때는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됐는지 국민에게 누군가 說明을 해 주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정부가 유아무야로 넘어갈 양이라면 新聞이 그 일을 맡아야 할 것 아닌가 말이다.

엄청난 세금을 써 지탱되는 우리의 研究 教育기관에 관한 문제인데, 그리고 적지 않은 잡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政府도 新聞도 모두 꿀먹은 벼어리가 되어 있다. 한 때 서술이 푸르던 주인공들이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아무런 비리도 잘못도 없다는 식이니 참 異常하지 않은가?

꼭 이 문제만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독자의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신문기사는 사람이 이야기를 많이 넣어야 한다. 좋은 뜻에서나 나쁜 뜻에서나 과학기술의 문제를 사람의 일로 만드는 기사를 써내야 한다는 것이다. 科學者, 技術者들의 사진과 이력은 물론이고, 사생활에 관한 것까지 기사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걸핏하면 소설가, 시인, 음악가, 미술가등의 이름과

사진은 뻔질나게 신문에 오르내리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한 것이 한국의 신문 지면이다.

엘로우 페이퍼(yellow paper)란 評判을 들을 정도로 과학기술에 관한 기사를 좀 저속화(?)하려는 각오가 과학기자들 사이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과학기술을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들고, 말썽꺼리로 만들고, 바로 우리 생활에 직결된 내이야기로 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맺 는 말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을 우리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 없이는 우리의 民族的 存在는 세계속에 점점 미미한 것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학기술만 잘 발달시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으로 올라 설 수도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런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당장 요구되는 일은 우리 과학기술수준을 創造的 단계로 끌어 올려 놓는 일이며, 그 일이란 全國民의 바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국민적 바탕을 만드는 일이 곧 오늘 한국의 신문, 잡지, 방송등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 한국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마치 研究만하면 과학기술이 발달하리라는 전제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한심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우리 科學技術 政策은 “엘리트 과학”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시대적 요청은 국민적 바탕을 중시할 수 밖에 없는 “民衆的 科學”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